

## | PREVIEW with INTERVIEW |

최승훈 개인전 <모놀로그>  
choi sung hun's solo exhibition <monologue>

전시기간 | 2014. 05. 09 금 - 05. 29 목  
오프닝 리셉션 | 2014. 05. 09 금 6:00pm



<waterfountain> single channel video\_3'12''\_2014

\*'최승훈+박선민' 듀오로 활동해 온 작가 최승훈의 작업세계를 소개한다.

**Q. 이번 전시 <모놀로그>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말 그대로 독백입니다. 이것이 이번 전시에 대한 가감 없는 요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다, 주장하다'보다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중얼중얼거리다, 눈에서 흘러나오다'에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평소 작업을 제작하고 설치할 때 설치 공간과 작업 간, 혹은 작업과 작업 간의 크기, 비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어느 작업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 없이 비슷한 크기의 사진과 영상 스크린으로 나열되었습니다. 중얼거림이죠. 물론 이번 전시의 형식적 특징들이 관념적으로 기획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시키는대로 하고 보니 그런 것 같다는 말이죠.

**Q. 영상 작업에서 실제 풍경 속에서 촬영되지 않고 풍경 사진을 둔 채로 그 프레임 안에서만 카메라를 움직인 형식이 특이했는데요, 실제 풍경을 촬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A.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과거와, 현재의 상념들과 뒤엉키면서 사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사진을 다시 보는데 사진 속의 풍경이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시작된 이미지 유희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눈 안에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되었고요, <amusement park>시리즈는 '완전히 정지된 시간, 진공의 공간, 목적 없는 움직임, 공허한 휴식, 말을 배우기 전의 유희'로 귀결되었습니다. 굳이 실제풍경을 영상장비로 촬영한 영상과 비교하자면 영상을 보면서 숨을 쉴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기를 빼버렸으니까요. 현상을 빼버린 현상이죠.

**Q. 지금까지 언어적 유희에 대한 많은 고찰과 언어의 이미지화에 대한 작업을 많이 해 오셨는데, 평소 생각하시는 언어와 이미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이번에 전시한 작업 중에 <미화평화>라는 영상작업이 있습니다. 저는 미화 혹은 평화하지 않고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을 알았다면 문학을 했겠죠. 절대 문학을 평화하는 게 아니라 미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위대합니다. 아니, 관점에 따라 평화일지도 모르겠네요. 언어와 의미의 불완전함을 이미지의 유희가, 그리고 이미지의 빈 공간을 시적 여운과 여러 각도의 해석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다시 박선민 작가와의 협업을 하실 텐데 이번 전시가 앞으로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A. 보편성을 획득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주관 끝에 가서 섰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이 담론이 되는 과정이나, 자아가 타자를 공감하고 이해해가는 과정을 관찰해 보면 모두 그렇죠. 최승훈과 박선민은 각자 안에있는 우주를 재점검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최승훈+박선민'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최승훈+박선민'을 좀 멀리서 보면, 처음부터 이래왔고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기도 합니다. 말이 안되지만 사실입니다. 놀이의 재료와 방식은 조금씩,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지만 놀이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두 사람 다 그리 멀리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작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작업을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게 큰 재미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효숙 개인전  
Chin hyo sook's solo exhibition <PRESENCE+ING>

전시기간 | 2014. 06. 07 토 - 06. 27 금  
리셉션 | 2014. 06. 13 금 6:00pm



<Now, we see.> 디지털 C-Print\_2014

\*진효숙 작가는 건축 사진가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Q. 이번 전시에서 건축(공간)사진이 작품으로서 기존 작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사실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이지만 이전에는 전문적인 상업 사진작가로서의 저의 작업과 작품으로서의 작업을 구분해서 진행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되고 낡았으나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있었기에 오래된 아파트나 건물에 대한 기록의 형식으로 상업적 활동과는 별개의 작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광주극장'의 작업은 저의 이런 의지를 지속하고자 하는 결과물입니다. 기존 작업과 다른 부분은 몇년 전의 저의 작업이 대상을 이해하고 담는 것에 충실했다고 한다면 근래의, 최소 3년 여 전부터의 작업에서는 저의 해석과 시도를 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Q.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현재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이 갖는 특성은 현재를 기록하는 동시에 과거를 포함하게 되는데, 작가님의 '현재성' 역시 현재와 과거를 함께 내포하게 되는 것인가요?**

A. 사진 안에 담긴 그 순간의 이미지는 늘 현재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으로 찍히고 난 순간 이후는 모두 과거가 되므로 우리는 미래에서 그 사진을 보고 있지만 실상 사진에 담긴 순간 고정된 이미지는 늘 현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현재성이자 현재 진행형의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 이번 전시의 건축사진에서 공간성이 아닌 '시간성'은 촬영한 당시의 시기적 의미일까요, 혹은 촬영된 결과물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속에 있는 걸까요?**

A. 두 가지를 다 포함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상인 건축물을 촬영할 때 어떤 모습을 담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앞에 둔 대상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과 내외부의 공간을 경험하며 어떤 시간대에 어떤 공간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할까 하는 고민이지요. 예를 들자면 촬영할 당시는 2014년 2월의 겨울이었고 그 겨울의 시간적인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어스름 저녁에 눈이 흩날리는 날 촬영 대상인 건물이 홀로 서있고 그 앞을 눈바람을 헤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과 시간과 느낌을 의도된 기다림(적절한 시간과 사람 등등..)을 통해 사진에 담아냅니다.

**Q.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한 장치들은 어떠한 것들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아침 혹은 오후의 빛, 어스름한 시간, 내부로 스며드는 한 줄기 빛, 혹은 빛이 사라져간 어둠이 등장하는 시간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장치는 사람입니다. 적절한 시간과 공간에 등장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의미 전달요소입니다. 단순하게 건물이나 공간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작은 장치가 아니라 때로는 건물이 사람의 배경이 되어 전체 주제를 만들어 가는 역할도 합니다.

**Q. 대상을 선정할 때 건축물(혹은 공간)의 디자인적 요소가 작가님의 의지와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 건축물이 놓여져 있는 공간적 위치라던가 그 때의 상황들이 보다 중요한 의미로 작용합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대상을 만나고 느끼는 순간을 찍은 사진들 중에서도 저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간 사진들입니다. 따라서 촬영될 대상은 의뢰를 받아 선정되었을지라도 그 이미지는 의뢰하신 건축가가 촬영해 줬으면 하는 상업적 결과물이 아니라 제가 표현하고 싶은 내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로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